

ISSUE BRIEFING

리모트워크 (Remote Work)시대 도래와 전복유치전략

이슈브리핑
2021. 04. 09 vol.244

연구진
김동영_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1.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리모트워크

■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증가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 통계청(2021)에 의하면 유연근무참여자는 2015년 전체 취업자의 4.6%에서 2020년 14.2%로 증가하였으며, 이런 증가의 3분의 1 이상이 2020년 한해에 이루어 짐(한국일보, 2021.2.4.)
- 한국경영자총협회(2020)에 따르면, 국내 매출 100대기업 중 88.4%의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교대순환방식과 재택근무 등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재택근무 활용에 대해 53.2%의 긍정적 평가
- 잡코리아(2020)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5%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리모트워크의 부상

- 원격근무는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미래연구센터의 잭 닐스(Jack Niles)가 처음 사용한 이후 앨빈 토플러에 의해 대중화된 개념
- 닐스는 원격근무를 근로자들이 컴퓨터와 통신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출퇴근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이동을 원격정보통신으로 대체하여 전통적인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근무형태로 정의(김현식, 2004)
-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는 ‘telecommuting’, ‘work from home’, 원격근무는 ‘telework’, ‘remote work’의 용어를 사용하며, 국가별로 다양한 의미로 정의됨(강민정, 박선미, 2020)

국가	정의
유럽	- 고용 계약 및 고용 관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사(고용주가 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원격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구성·수행하는 형태(Eurofound, ILO)
일본	- IT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자택, 위성 사무소, 원격근무 센터 등에서 정규직으로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고용 형태(총무성)
미국	- 직원들이 통상의 유급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이 인정한 자택, 지정된 원격근무 센터의 대안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근무제 유형 중 하나 (인사관리처)
한국	- ICT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 워크센터, 재택근무, 스마트오피스, 유연근무제 포함(과기정통부·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디지털 서울 이슈리포트, 2020,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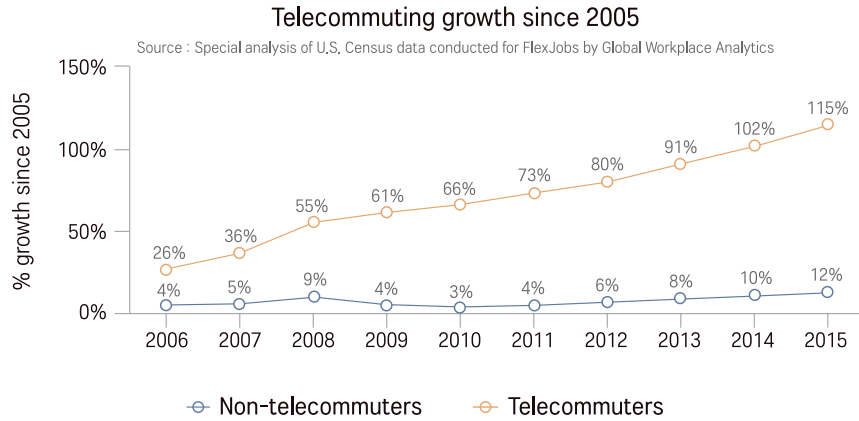
[표] 원격근무(remote work)의 정의

- 재택근무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이라는 공간을 한정해서 업무를 보는 방식이고, 원격근무는 업무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해진 일을 할 수 있는 대체가능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개념으로 정의
- 코로나19는 그동안 대면근무를 선호하는 국내 기업문화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았던 원격근무의 도입을 촉진하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

▣ 리모트워크는 단순 트렌드가 아닌 미래의 일하는 방식

- 근로자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내갈등이나 보고체계 및 회의 등을 최소화하고 일의 성과에 집중하여 회사에 더욱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업무 생산성, 노동력 감소, 일과 삶의 균형, 환경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리모트워크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
 - 글로벌워크플레이스에널리틱스(Global Workplace Analytics)와 플렉스잡(Flexjob)이 발간한 2017 텔레커뮤팅 리포트에 따르면 2005~2015

〈그림〉 리모트워크 성장추세



출처: 2017 텔레커뮤팅 리포트, PUBLY(2021) 재인용

- 리모트워크는 출퇴근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보호는 물론 전문성에 기반하여 취업소외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며 대도시 집중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리모트워크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갈수록 리모트워커가 증가하는 추세

1) 리모트워크를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중 해외사례는 디지털 서울 이슈리포트(2020-02호)의 '스마트워크 정책동향-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를 참조하여 작성

2. 리모트워크관련 국내외 정책동향¹⁾

■ [국내]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지원

- 우리나라는 1977년 근로기준법에 유연근무제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재택근무에 의한 차별금지 등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
- 정부는 2011년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을 발표하고 모바일오피스,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영상회의를 통한 직장근무 등의 스마트워크도입과 법 제도 현황을 제시

- 고용노동부는 2017년 체계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운영을 위한 매뉴얼에서 유연근무제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정의
-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선택, 재량, 원격, 재택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 2020년에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생활 균형을 통해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
- 재택근무 도입·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지원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
- 국내 디지털산업기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리모트워크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상어가족’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개발업체 핑크퐁의 개발팀은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장소를 모두 직원이 정하고 사무실이 아닌 집, 카페, 휴양지 등 원하는 곳에서 근무
 - 웹 디자인 기업 ‘슬로워크’ 디지털사업부는 매일 오전 화상회의로 성과를 점검하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휴가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리모트워크 시행 중
 - 인공지능기반 동영상 후기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텐트코퍼레이션’은 2018년 설립당시부터 리모트워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메신저를 통해 업무현황을 제때에 보고만 하면 카페나 타지역에서 장기 원격근무도 가능

■ [유럽] 텔레워크에 의한 기본협정(2002)

- 유럽은 2002년 EU의 텔레워크에 관한 기본협정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생산성 향상, 일과 삶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근무 추진

-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및 지식기반 일자리로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장소의 유연화가 요구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원격근무 발전
- 유럽은 최근 TICMT(Telework and ICT-based mobile work)를 활성화기 위해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 고령 친화적 생활·작업 환경, 스마트 워킹 프로젝트 모델 개발 중
-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는 공유오피스와 보육시설을 갖추어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장(Co-working Spaces with Childcare)으로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전반에서 시행 중
- 고령친화적 업무환경(Smart-Age-friendly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구축 프로젝트는 업무공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건강, 활동 및 움직임, 라이프스타일, 정신·심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업무관련 데이터를 연계·활용하여 근로자, 고용주,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스마트워킹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바리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업무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바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를 위한 보다 편리한 운용체계 마련

■ [미국] 텔레워크 촉진법(2010)

- 미국은 텔레워크 촉진법(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 제정 이후 인사관리처(OPM)에서 원격근무제를 전담하고,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정책 실시
 - OPM은 연방 원격근무제 논리 모형에 따라 지침 수립·제공, 성과관리, 원격근무지원 포털 운영, 사례 발굴, 실태 보고서 제출 등의 역할 수행
- 코로나19사태 이후 미국은 연방정부 근로자들의 원격근무와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장려를 발표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유급 근무 면제 방안 또한 고려
- 테네시주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AWS(Alternative Workplace Solution)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원격근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정책 확대 추진 중

- 버지니아주는 민간부문의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5만달러의 세액공제 및 원격근무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200달러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고용주에게 1회 최대 2만달러 지원
- 원격근무 지원 포털을 통해 연방정부의 원격근무 전담부서 관리자 및 근로자 공무원 대상으로 관계법령, 가이드라인, 지침 정보 제공

3. 전라북도 리모트워커 유치전략

▣ 기업의 원격사무소 전복지사 설립 유치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시간과 공간을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근로자, 그리고 창조적인 분야에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욕구가 만나 본사가 아닌 지방에 분산형 원격사무소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원격사무소는 대체로 지방에 지사를 설립하여 본사의 일부기능을 수행하도록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는 원격근무의 한 형태로 직원이 상주하는 체류형 원격사무소와 프로젝트별로 순환근무하는 순환형 원격사무소로 구분 가능
- 지방차원에서는 다음-카카오의 제주도 본사이전과 같이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더 좋지만 강원도에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방식과 같이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수월
-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원격사무소의 지방 지사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도쿠시마현은 '위성사무실 유치팀'을 만들어 위성사무실 유치에 따른 보조금지원, 빈 점포 활용지원은 물론 위성사무실 체험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도쿠시마현 전역에 약65개의 위성사무실 운영 중

〈그림〉 도쿠시마현 위성사무
실 「엔가와 오피스」



출처: <https://enzaim.tistory.com/1209>

- 천혜의 자연환경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은 도시에서의 출퇴근 스트레스를 탈피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는 리모트워커들을 위한 최적의 원격사무소 장소로서 경쟁력이 있음
- 전라북도는 다양한 기업의 전북지사 설립을 유도하는 ‘전북지사 기업유치팀’ 신설, 보조금지급 및 빈집 활용 숙박 및 사무공간조성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기업 원격사무소 전북지사 지원조례」 제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리모트워커의 상시적 상주공간인 원격사무소 전북지사 유치 필요
- 원격사무소 전북지사 유치는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창조적 인력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활력과 인구균형에 기여

■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워케이션(Workation) 시범지역 지정

- 트렌드코리아는 원격근무를 의미하는 텔레워크(telework)를 2021년 키워드로 선정하면서 워케이션(workation)문화의 확산을 예상
-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성한 용어로 단순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넘어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를 보는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방식

- 미국 실리콘밸리 소식을 전하는 ‘더 밀크’는 최신포 ‘파라다이스에서 일하세요, 워케이션 시대’(2020년 9월 27일자)를 통해 ‘노동자의 구분도, 일의 정의도 바뀌고 있고 일하는 장소도 점차 불명확해지고 있는 시대’라면서 ‘미래는 기업 문화가 강력한 기업이 더욱 번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워케이션을 받아들이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동아닷컴, 2020. 10. 31)
- 미국 캘리포니아 캠핑지인 타호(Tahoe)에 2014년 설립된 ‘타호 마운틴 랩’은 공동 작업공간을 두고 눈 덮인 봉오리와 호수로 유명한 타호에서 스키와 하이킹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모션을 추진 중



〈그림〉 타호 마운틴 랩

출처: <https://tahoequarterly.com/ski-ride-2017/tahoe-mountain-lab-brings-coworking-space-heavenly>

- 전라북도는 바닷가, 숲과 산림, 경관농업지구 등 자연관광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이 가능한 지역과 시설을 선정하여 숙박과 업무 및 관광체험이 가능한 시범사업 추진
- 전라북도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지의 숙박시설이나 연수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의 호텔이나 리조트 등에 업무가 가능하도록 공동사무실과 랩실(Lab) 구축을 지원하고 워케이션 근로자만을 위한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하여 전복의 워케이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필요

- 위케이션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관광지의 특성으로 인해 비수기 공실증가에 따른 주변상가의 지역경제 악화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체류인구의 증대로 지역활력에도 기여

▣ 리모트워커를 위한 투어패스 제작

- 리모트워커의 전복유치를 위해서는 리모트워크 지원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마련과 리모트워커들에게 매력적인 공유오피스 조성과 일과 휴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홍보와 리모트워커 유치 등을 위한 프로모션 활동 등이 필요
-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리모트워커스 맵 제주 (REMOTEEWORKER's MAP JEJU)를 제작하고 “제주, 일하러 왔어요”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일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도내 공유오피스 위치와 시설현황 및 주변의 휴식이나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고 있음

〈그림〉 리모트워커스 맵 제주



출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www.jccei.kr/workhub2/inflow/map.htm>)

- 전라북도 리모트워크 지원 포털을 만들어 전라북도와 시군 원격근무 전담부서 관리자에게 관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참여자에게는 전라북도의 매력적인 공유오피스 현황 및 지원내

역 등을 제공

- 도내 리모트워크를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을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사업,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전라북도 제도적 장치 마련
-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어패스와 연계한 ‘리모트워커 투어패스’를 만들어 일과 휴식이 가능한 전라북도 리모트워크 공유오피스를 소개하고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전북 리모트워커 투어프로그램’ 운영
- 리모트워커 유치사업은 새로운 체류인구의 유입과 체류시간의 증대를 통해 체류인구 확대는 물론 리모트워크 관련 스타트업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참고문헌〉

- 강민정, 박선미, 2020, 스마트워크 정책 동향: 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서울디지털재단
김현식, 2004, 원격근무와 노동의 변화,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5호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017, 유연근무제 Q&A
고용노동부, 2020, 성공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길잡이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21. 04. 09 vol.244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